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계 연구

김경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계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계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우즈베키스탄
- III. 결론

## I. 서론

2014년 5월 2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의 창설조약이 체결됐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기존에 있었던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간 관세동맹의 발전된 형태로 201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은 1억 7천만의 인구<sup>1)</sup>를 가진 단일시장을 갖게 된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연합회원국 간 에너지, 산업, 농업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주요부문의 정책 공동 조정 등 높은 수준의 통합을 골자로 한다.

러·벨·카 3국외에도 아르메니아의 세르즈 사르그샨 대통령은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빠르면 6월 중 가입할 것으로 밝혔다.<sup>2)</sup> 키르기스스탄 역시 연말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단계인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정치독립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단순히 단일 경제시장 형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독립주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독립 없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경제권 통합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밝혔다.<sup>3)</sup> 우즈베키스탄은 소

1) 2014년 5월 29일 Rianovosti, <http://ria.ru/politics/20140529/1009901455.html>

2) 2014년 5월 29일 Rianovosti, <http://ria.ru/economy/20140529/1009830732.html>

3) 2014년 6월 11일 uznews net,

<http://www.uznews.net/en/world/26664-why-karimov-ignores-closer-integration-with-cis-coun>

련에서 독립한 이후 탈러시아에 앞장서 왔기에 이번 카리모프의 발언은 탈러시아의 연장선으로 러시아로의 경제적·정치적 종속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계 분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부정적 반응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계

### 1.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러시아는 2013년 기준 인구 1억 4,300만 명으로 세계9위, 2012년 기준 명목 GDP 1조 9,535억 달러로 세계 8위(1인당 14,973달러), 경제규모(PPP)는 2조 5,117억 달러로 세계 6위(1인당 21,245달러), GDP대비 공공부채비율 8.7%인 국가이다. 자원수출 경제로 2000년 이후 유가호황을 맞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소비재 부문이 취약해 소비재의 4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가스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9.2%로 나타났다.<sup>4)</sup>

러시아는 세계적인 투자 유치국이며 투자 국가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자원기반 기업들의 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 러시아는 투자 유치국 9위, 투자국 8위로 나타났다.<sup>5)</sup> UNCTAD가 발행하는 세계투자보고서 2013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2년 한 해 동안 5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다시 5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투자 받는 금액만큼 다시 투자를 하는 국가로 중국은 제외한 다른 BRIC's 국가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어 우량기업들의 가치가 하락되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주된 투자는 금속, 철강, 에너지 자원과 브라운필드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투자기업이 에너지, 철강, 군수, 선박회사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제조업의 경우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주된 투자 국가는 유럽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투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왕복투자(Round-tripping)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주된 투자 국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네덜란드, 키프로스 등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 국가 역시 거의 동일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네덜란드, 키프로스 등의 국가는 조세피난처로 불린다. 조세피난은 합법적인 돈세탁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러시아의 조세회피 규모는 7,9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tries

4) 2013년 04월 17일 서울경제뉴스,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cono/201304/e2013041718192769760.htm>

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그림 1, 러시아 상위 투자 국가 누적금액

러시아 투자 상위 10개국			러시아의 투자 상위 10개국		
	2013년 12월까지 누적			2013년 12월까지 누적	
	총액	%		총액	%
총투자	384,117	100%	총투자	176,411	100%
주 투자국가	321,456	83.7%	주 투자국가	158,654	89.9%
키프로스	69,075	18.0%	버진아일랜드	59,753	33.9%
네덜란드	68,176	17.8%	키프로스	33,041	18.7%
룩셈부르크	49,192	12.8%	네덜란드	23,303	13.2%
중국	32,130	8.4%	영국	9,105	5.2%
영국	27,977	7.3%	스위스	8,265	4.7%
독일	21,309	5.5%	룩셈부르크	7,092	4.0%
아일랜드	20,087	5.2%	오스트리아	6,364	3.6%
프랑스	13,227	3.4%	벨라루스	5,510	3.1%
미국	10,305	2.7%	미국	4,069	2.3%
일본	9,978	2.6%	버뮤다	2,149	1.2%

단위 100만 달러

출처, Росстат 러시아 연방국가통계서비스

러시아통계청에 의하면 2013년 12월까지 러시아 투자에 있어서 상위 10개국이 가지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상위 10개국 중 다수는 조세피난처로 왕복투자를 위한 투자였다(그림 1). 실제로 러시아의 대형철강회사 EVRAZ의 최대주주는 키프로스 소재의 회사이며, 또 다른 러시아의 대형철강회사 NLKM의 최대주주 플레처지주 그룹이었는데 이 회사 역시 키프로스에 있는 회사였다. 또한 네덜란드와의 모든 상호투자가 탈세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역시 가스 프롬과 금융서비스나 에너지산업 관련 기금에 관련이 있었다. 외국인들의 투자는 주로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투멘이나 칼루가와 같은 자원 생산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보여준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러시아 총 수출입은 7천 2백억 달러(수출 4,520억, 수입 2,760억) 규모였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은 유럽이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네덜란드(12.1%), 독일(6.6%), 이탈리아(6.3%)였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6.8%)이 유일했다.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15.8%), 독일(12.3%), 우크라이나(6.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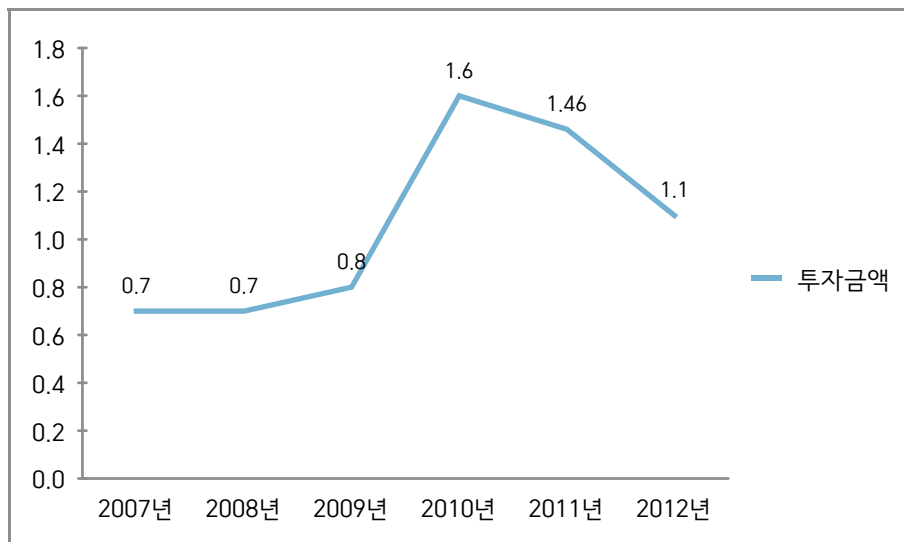
러시아는 전형적인 자원의존경제를 보여준다. 자원의존경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수출에서 광물자원의 비중은 42.5%였으나 점차 상승하여 러시아 통계청의 대외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0년 수출에서 광물자원의 비중은 70.3%였으며 이외에 금속, 보석(11.1%), 화학제품과 고무(6.0%)로 러시아 수출은 거의 자원관련 수출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했지만 실제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6%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기준 인구 3천만, 명목 GDP 551억 8000만 달러(1인당 GDP 1,851 달러), 경제규모(PPP) 1,125억 7000만 달러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 둘 밖에 없는 이종내륙국으로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면화와 석유, 천연가스, 금이 풍부하고 주된 수출자원이다. 이외에도 망간, 아연, 구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과일 등의 농작물 생산량이 높다. 우즈베키스탄

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자원의존경제로 최근 5년간 꾸준히 8% 이상의 고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4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3% 하락한 7.8%로 예상된다. 2014~15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선심성 지출확대와 민간 소비 증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개발프로그램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의 한계로 성장을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치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려 노력하지만 숨(so'm)'화 가치 하락, 최저임금 상승, 내수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의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sup>6)</sup>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과도한 외환 통제는 블랙마켓 거래로 이어져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통제와 수입규제정책, 열악한 기업환경과 부정부패,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는 적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 조세제도, 자원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보이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하고 이곳에 자유산업경제구역(FIEZ)를 조성하여 세금혜택, 외국환 사용허용, 관세면제 등 많은 특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환경 순위는 146위로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2012년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억 달러가 감소했다(그림 2). 또한 통관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20% 및 소비세 5~50%가 부과되고 있어 실질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자국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와 개인에 대한 외화의 판매 금지와 소매 및 서비스 부분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림 2, 대 우즈베키스탄 FDI 유입 실적



단위 10억 달러

출처, World Bank

6)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분석부 국별산업조사팀, 우즈베키스탄 정치·경제동향,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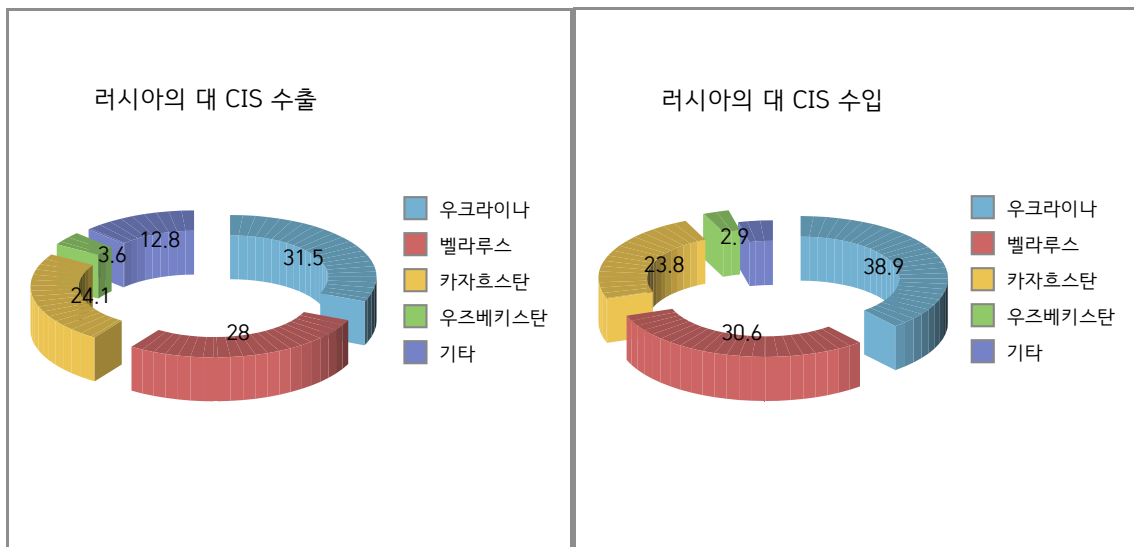
주 투자 국가는 중국, 러시아, 독일, 한국 순이며 광물, 에너지, 석유가스 부문의 투자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자원의존경제로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보이 특구 외에도 안그렌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해외제조기업의 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제로 ‘안그렌 설탕’, ‘우즈-에코프로젝트’ 등 외국계 합작기업이 설립되어 안그렌에 제조공장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은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 2.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계

러시아에게서 우즈베키스탄은 그렇게 중요한 시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러시아 수출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지는 비중은 아주 작았다. 러시아의 대 CIS 국가 수출의 3.9% 수입의 2.9% 밖에 되지 않았으며(그림 3), 전 세계 국가 기준으로는 전체 비중의 0.4%에 불과해 다른 CIS 국가에 비교해서도 턱없이 적었다<sup>8)</sup>.

그림 3 러시아의 대 CIS 수출입 비중



(%)

출처, Росстат 러시아 연방국가통계서비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전체 대외무역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비중은 약 29%로 가장 많았으며 2012년 러시아연방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의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1p

8) 러시아 통계청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 수출입에서 우크라이나는 6.3%, 벨라루스는 4%, 카자흐스탄은 2.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0.4%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대 CIS 수출입에서 우즈베키스탄은 3.3%로 네 번째에 위치해 있었으나 앞의 세 국가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9)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무역은 40억 달러에 달했다.10) 우즈베키스탄의 주 수입 품목은 목재와 펄프 및 종이제품이 24.3%, 금속과 금속제품이 19.7%, 기계 장비 및 차량이 15.9%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주 수입 품목은 섬유 및 섬유제품과 신발 46.5%, 기계, 장비 및 차량 37.6%,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5.5%였다(그림 3). 다른 CIS국가와 러시아의 대외 무역은 주로 연료 및 에너지제품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반해 우즈베키스탄은 목재, 펄프 및 종이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대러 수출에서 기계, 장비 및 차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2013년 양국의 무역은 전년대비 9.4% 증가했으며, 2014년 1분기엔 전년대비 28.1%나 증가하였다.

그림 3 2011년 1월~2014년 3월까지 러시아의 대 우즈베키스탄 대외 무역 정보

	수입		수출	
	금액	%	금액	%
식품 및 농업원료 (섬유 제외)	59,928,106.24	8.9%	10,759,701.43	4.7%
광물 자원	126,041,529.49	18.8%	94,398.63	0.04%
연료 및 에너지제품	119,525,721.94	17.8%	-	-
화학제품 및 고무	69,052,563.26	10.3%	4,484,126.5	1.9%
모피 및 가죽류	20,855.35	0.003%	31,221.06	0.01%
목재와 펄프 및 종이제품	163,049,971.48	24.3%	414,105.15	0.2%
섬유, 섬유제품 및 신발	2,808,959.45	0.4%	106,201,245.92	46.5%
귀금속	4,775,700.99	0.7%	12,648,369.19	5.5%
금속 및 금속제품	132,220,001.34	19.7%	7,145,608.23	3.1%
기계, 장비 및 차량	106,842,826.86	15.9%	85,856,424.26	37.6%
기타 제품	7,012,970.89	1.0%	649,443.02	0.3%

단위 달러

출처,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Узбекистане

9) 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대사관, Российско-узбекские отношения 참고

10) 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УЗБЕК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참고

러시아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역시 대외무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러시아의 대 CIS 투자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3%에 불과했다. 이는 1위 벨라루스(59.3%), 2위 카자흐스탄(20.1%), 3위 우크라이나(13%)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준이었다(그림 4). 2012년 전 세계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투자 비중에서 0.1% 수준으로 러시아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 러시아 투자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비중은 아주 낮았다. CIS국가 들 중 0.9%에 불과했으며 전 세계 비중으로 봤을 때 0.05%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림 5).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게 있어 러시아 투자 비중은 굉장히 높다.

그림 4, 2012년 러시아의 대 CIS 투자

	러시아의 대 CIS 투자	
	단위 백만 달러	%
총 금액	11,968	100%
아제르바이잔	51	0.5%
아르메니아	47	0.4%
벨라루스	7,101	59.3%
카자흐스탄	2,409	20.1%
키르기스스탄	251	2.1%
몰도바	227	1.9%
타지키스탄	169	1.4%
투르크메니스탄	3	0.0%
우즈베키스탄	160	1.3%
우크라이나	1,550	13.0%

출처, Росстат 러시아 연방국가통계서비스

그림 5, 2012년 CIS 국가의 대 러시아 투자

	CIS의 대 러시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
총 금액	7,336	100%
아제르바이잔	147	2.0%
아르메니아	83	1.1%
벨라루스	2,558	34.9%
카자흐스탄	3,011	41.1%
키르기스스탄	602	8.2%
몰도바	56	0.8%
타지키스탄	60	0.8%
투르크메니스탄	10	0.1%
우즈베키스탄	68	0.9%
우크라이나	741	10.1%

출처, Росстат 러시아 연방국가통계서비스

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에서 러시아의 투자 비중은 중국 다음이며 98%가 석유가스, 에너지 단지 및 정보 통신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sup>11)</sup> 러시아의 대형 석유회사 루코일은 48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루코일은 우즈베키스탄 내 가장 큰 투자회사이다. 가스프롬은 У с т ю р т 지역 탐사에 3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내 모바일 및 유선통신 업체 В ы м п е л К о м은 러시아 기업의 자회사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에 생산라인 현대화나 시멘트 생산, 비료 생산 등 많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초 기준으로 846개의 러시아-우즈베키스탄 합작기업과 401개의 러시아 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러시아는 나보이와 알마릭 광산의 채굴 및 가공에도 투자하고 있다.

CIS국가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송금경제이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국 내 경제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유라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11년 2분기에만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되는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 CIS국가 중 최대라고 한다.<sup>12)</sup> 우즈베키스탄의 GDP가 551억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규모이다.

앞선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에게 러시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국가로 보인다. 특히 투자 및 교역부문을 생각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국가로 판단된다.

### 3.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경제가 러시아 경제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의 통합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나온 것처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통합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행보는 처음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직후 키릴문자를 로마문자로 바꾸었으며 자국영토에 미군 기지를 할양하는 등 탈 러시아에 앞장서 왔다. 또한 2008년 EurAsEC(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에서 탈퇴하였고 1999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서 연장 협약체결을 거부하며 탈퇴를 했다. 이후 2006년 집단안보조약기구에 재가입한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다시 돌연 탈퇴를 했다. 특히 EurAsEC의 경우는 조직의 비효율성과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간 관세동맹을 벨미로 탈퇴를 한 경우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유대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즈베키스탄은 공교롭게도 올해 4월엔 2011년 창설 당시 CIS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협정을 거부하던 CIS 자유무역지대(FTZ)에 8번째로 가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런 외교는 러시아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2005년 GUUAM에서 돌연 탈퇴를 선언했으며, 동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남부 하나바드 미 공군기지에 철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어느 한 국가나 연합에 휩쓸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리외교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해 쓴 소리를 늘어놓은 우즈베키스탄이지만 향후 가입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게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은 놓치

11) 우즈베크 통계청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며,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 및 무역부에 비율을 제외한 순위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 및 무역부에 따르면 대 우즈베키스탄 상위 투자 국가는 중국, 러시아, 독일, 한국 순이라고 한다. 외국인의 주요 투자부문은 석유와 가스부문(59.9%)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외에 운송(8%), 정보 분야(6.4%) 등이다.

12) 유라시아개발은행, 2011년 10월 기사,

[http://www.eabr.org/r/press\\_center/region\\_news/index.php?id\\_4=2645&from\\_4=814](http://www.eabr.org/r/press_center/region_news/index.php?id_4=2645&from_4=814)



기 아쉬운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을 놓칠 수 없기에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독려해 가입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Ⅲ. 결론

2011년 기준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3국은 CIS 11개국 경제규모의 70%,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9%, 가스매장량의 25%, 연료수출량의 14%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가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뉴질랜드, 인도 등 여러 국가들과 실질적 FTA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가입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한 많은 우려중 하나인 거대한 경제를 가진 국가 하나와 작은 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면 작은 국가들은 다소 발언권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엔 경제로 인해 정치가 종속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순 지표만을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일부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모두 자원의존 경향이 큰 국가로 국가의 성장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특유의 폐쇄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으로써 굳이 가입할 가치를 못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는 주변국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줬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와의 경제적 통합이 의존성을 더 높이고 나아가 러시아가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을 통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두 국가 역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정치적 의사가 없으며 소련의 부활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자주권과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즉각 탈퇴할 것”이라는 발언은 소련의 부활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서방에게 정당성을 말함과 동시에 러시아에게 하여금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게 경제적 보복을 했으며 이로 인해 벨라루스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sup>13)</sup>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게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겐 미미할지 몰라도 우즈베키스탄에게 러시아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위 투자 국가였다. 러시아가 러시아와 비교적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에 투자한 금액을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고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러시아가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국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대러 수출은 감소되는데 반해 대러 수입은 증가 하였다. 이는 관세동맹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자원 수출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게 필요한 해법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유대인 것이다. 또한 러시아로써도 우즈베키스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13) 2013년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보호무역을 해서 자국산 육류, 유제품, 설탕의 진출이 좌절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러시아 기업 우랄칼리의 대표를 체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조치로 벨라루스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와 석유수출을 줄였다.

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양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로써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회유책을 쓸 것이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지만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식 실리외교로 보이며 러시아의 여러 회유책을 통해 몇 년 안에 최소한 관세동맹으로의 가입을 예상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간 경제관계, 가입희망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등에 대한 연구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세진, (2014).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김세진. (2014).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이재영 외 3명. (2012). 러시아의 해외 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연구보고서 12-19
- 조영관. (2013). 우즈베키스탄 안그랜 경제특구의 설립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코트라. (2011).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외국인투자 정책센터.
-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분석부 국별산업조사팀. (2014). 우즈베키스탄 정치·경제동향.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